# 전남도 의사결정 제대로 안된다

## 최고 기구 도정조정위, 박람회·F1·광역 경제권 등 현안 불구경만

현안사업 등을 논의·결정하는 전남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남도 정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현안들이 충분한 검토나 여론수렴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등 전남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로서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결정, 중앙과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 전남도의 행정 전반을 조정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및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전남도의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위원회 개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목요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7회, 올 10월말 현재 3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다룬 주요 현안은 지난 6월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전담기업(SPC)별도 출자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건 등이었다.

올 들어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5+2광역경제권 사업 등의 현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두게 돼 있는 위촉위원도 아예 선임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각종 현안과 지역 사업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목포~신안 압해도를 연결하는 다리 명칭을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없이 '김대중 대교'로 명명했다가 압해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압해대교'로 바꾸는 등 1개월 여 이상 행정력을 낭비했다.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정책 확대도 조정위원회를 거쳐 그동안 선결과제로 지적돼 온 품질 및 신뢰도 확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양적 팽창에 급급한 나머지 인증절차를 부실하게 거쳐 최근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대 한 교수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역 현안은 물론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토론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총 추정가 200억 원대의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가 20일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전문경매업체 에이옥션 주최로 열린 이날 경매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명훈지송첩' 등 239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출품작 13번 천경자씨의 수국입니다"

# 시작가 980만원 … 1,000만원 낙찰됐습니다

## 광주서 첫 미술품 경매 … 수집가들 큰 관심

"출품번호 13번 천경자씨의 '수국'입니다. 시작가 980만원부터 20만원씩 호가하겠습니다. 980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1천만원 없습니까. 예, 1천만원 나왔습니다. 다음 1천20만원 없습니까. 그럼 이번 작품은 1천만원에 77번 응찰자에게 낙찰됐습니다."

20일 오후 6시 제6회 근·현대 및 고미술미품 경매가 열린 광주 무등파크 호텔. 이날 행사를 주최한 '에이옥션'(대표 서정만) 경매사 서보훈씨가 우렁찬 목소리와 능숙한 진행으로 응찰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경매는 전문경매업체가 주최하는 경매로는 광주에서 처음 열린 데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명훈지송첩'(시작가 6천900만원), 이우환의 '바람으로부터'(시작가 4천800만원) 등 총 추정가 200억원대(239점)의 작품들이 출품됐다는 점에서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경매에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전주 등지에서 50여명의 응찰자들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20여명의 일반 관람객들도 현장에서 순식간에 가격이 정해지는 경매의 묘미에 빠져들었다.

최근의 경기침체 여파로 이번 경매에는 중저가 위주의 작품이 출품돼, 지역 응찰자들은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그림의 추정가를 미리 살피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또 광주지역 화랑 관계자들도 경매장에 나와 주위 사람들과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 정보를 주고 받았다.

반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매여서인지 일부 응찰자들은 작품을 착각해 가격을 잘못 부르거나 관심을 보이면서도 선뜻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서정만 대표는 "경매를 통해 작품의 거래가 활발해져야 지역 미술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광주지역 컬렉터들이 좋은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차례 경매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해남 '청정 절임배추' 인기 짱

## 먹을거리 불안에 김장 담는 가정 늘어나

## 주부들 주문 쇄도 … 하루 140~150t 출하

국내 최대 규모의 해남군 화원농협 김치공장이 김장철을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절임 배추를 생산하는 화원농협 김치공장은 주문 전화만을 받는 콜센터를 개설하고 10명을 배치했으나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멜라민 파동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려는 주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라인을 풀 가동해도 주문량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

요즘 절임 배추 하루 출하량은 140~15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배 이상이다. 절임 배추 가격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5포기에 1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5%가량 싸게 팔고 있다.

정영호 김치공장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10여일 빠른 지난 8일부터 절임 배추 대량 주문이 시작돼 현재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주문이 쇄도해 20여 일 기다려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원농협 김치공장에서 생산하는 절임 배추는 황토 땅에서 자란 싱싱한 배추를 1년간 불순물을 뺀 신안산 천일염을 사용해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절임 배추 뿐 아니라 인공 화학조미료 대신 표고버섯 등 천연 양념으로 담근 포기김치 등 16종의 김치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빛日만평

- 김종두

오늘 하루는 경제시름을 잊었다

# 영어회화 강사 4,000명 초등 배치

## 교과부 빠르면 2010년부터

이르면 2010년부터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의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맞춰 교사 수급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정책연구를 추진한 조석훈 청주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초등 3~6학년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사 배치 시기는 2010년부터 배치하는 1안, 2011년부터 배치하는 2안 두 가지가 제시됐으며 2010년부터 할 경우 2009년 하반기에, 2011년부터 할 경우 2010년 하반기에 각각 강사 채용 및 연수가 이뤄진다.

강사의 자격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1안,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2안,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하는 3안 등 3가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지방 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을"

## 균형발전협의체 '지방살리기 방안' 정부에 제출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26개항의 '지방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우선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 ▲대통령 소속 아래 지역경쟁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비수도권 행정 강화 ▲수도권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비수도권 발전 기금으로 환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각종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도권 인구총량제 신설과 과밀부담금 대상시설 및 부과대상 지역 확대 등도 법제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지출해 비수도권의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도 촉구했다.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강화, 비수도권 외국인 및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및 지원확대, 일반산단 조성비 국가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한 만큼 협의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제시한 지방살리기 정책과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訃告

容柱大人 南岡 金海金公 浚炯 以老患二〇〇八年 十一月 十九日
(陰十月二十二日) 午後 八時 三十分 別世 玆以告訃

殯所 : 三星 서울 病院 葬禮式場 第十六號
發靷 : 二〇〇八年 十一月 二十二日 午前 五時
靷場所 : 三星 서울 病院 葬禮式場
葬地 : 全南 務安郡 淸溪面 月仙里 山 一六參 番地

未亡人 金載妊
子 容柱 泓柱 泰亨 泰盛 景玉 汶
女婿 柳正子 申羅淑
孫 秀眞 秀玹 秀妍 志和 倫求 槇祐
孫女 崔賢裕 崔錫京 李貞德 全永美
曾孫 廷祐 錫錫 錫錫

連絡處 (殯所) 02-3410-6916
(個別訃告 省略) 故人의 뜻에 따라 화환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會社葬 公告

當社 創業主 金浚炯 名譽會長께서 老患으로 二〇〇八年 十一月 十九日 午後 八時 三十分 別世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永訣式을 擧行하게 되었음을 삼가 알립니다.

永訣式 日時 : 二〇〇八年 十一月 二十二日 午前 十一時
永訣式 場所 : 全南 木浦市 上洞 杏南磁器 本社

株式會社 杏南磁器 株式會社 모디
株式會社 杏南通商 株式會社 杏南세자네라 인도네시아
株式會社 杏泉磁器 株式會社 杏南鑛物精製
株式會社 杏南磁器流通 財團法人 杏南奬學財團
葬禮委員會 委員長 盧喜雄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글씨교정
▶취업·논술고사 대비 맞춤학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악필➡명필 1대1개인지도
(글씨교정기,교정노트)
바른글씨 교육원 T.062)269-0112 010-2642-5559

수완 롯데쇼핑 옆 최고상권!!
분양 펠리스 타워 임대
수완지구 25,000세대 아파트 입주시작

| 층 | 면적 | 권장업종 |
|---|---|---|
| 1층 | 15평~200평 | 금은방, 안경, 커피숍, 약국, 제과점 등 판매시설 |
| 2층 | 200평 | 훼미리식당,병원,다란주점,노래방 |
| 3~6층 | 각200평 | 병,의원, 학원, 독서실등 |
| 7층 | 200평 | 휘트니스 클럽 |
| 8층 | 50평 | 스카이 라운지 |

※면적 15평 부터 분할가능

펠리스 타워 분양사무실 062) 954-0031 010-7723-1033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08년 11월 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400,000,000원 중 금 800,000,000원장을 감소하여 금6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80,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140,000를 60,000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니다.

2008년 11월 21일

주식회사 월성종합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841-54(2층)
대표이사 이 한

자본감소 공고

본 주) 대영은 2008년 11월 10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금4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이 감소하여 금200,000,000원으로 하고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50,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 좌수중 90,000좌수를 40,000좌수로 감수하기로 결의하였음.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만약 위 기간까지 이의가 없으면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주식회사 대 영
광주 광산구 잠덕동 992-23
대표이사 나 병 옥

완도 명사십리 땅 급매매

| | | | |
|---|---|---|---|
| ●신지면 신리 420-1 | 田(740평) | 평당 | 11만원 |
| ●신지면 신리 448-1 | 田(500·1,000평) | 평당 | 15만원 |
| ●신지면 대곡리 1946-8 | 田(350평) | 평당 | 39만원 |

바닷가 요지, 관리지역, 도로접 팬션부지
▶7月달 관광지 승인, 주인직매 ☎011-765-9388